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생활철학 2 편>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간에 작금의 세계 자본과 세계경제를 주무르고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민족이 극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이라고 가정하면, 그들의 생활 철학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의 역사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유대인은 천지창조 시대를 기원전 3760 년으로 기준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서기 2012 년이니까 $2012 \text{년} + 3760 \text{년} = 5772 \text{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기원전 16~17 세기가 최초의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성서시대로 하고, 13 세기를 출애굽기 시대로 400 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생활을 모세가 탈출시킨 유대인의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유월절을 명절로 기념한다. 기원전 10 세기부터 사울의 초대 왕 등극으로 군주제가 성립되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군주시대는 유대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되었다가 7 세기에 앗시리아에 의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10 개 지파가 흩어지며, 5 세기 바빌론에 의해 유대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유랑생활이 시작된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지배를 지나 3 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그리스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63 년부터 로마제국의 지배와 헤롯왕의 통치를 받게 되며 이때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기원 후 1 세기 동안 유대인의 여러 차례 항전은 실패로 돌아가 예루살렘 지역 내 유대인 거주가 로마에 의해 금지된다. AC 313 년에 비잔틴의 지배가 시작되고 콘스탄티누스 1 세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됨과 동시에 유대인의 기독교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유대인을 억압하는 법률 등이 제정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민족을 독점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고 믿는 선민사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로부터 공식적으로 억압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독교 국가와 국민들에 의한 폭압과 유랑의 역사가 20 세기 중반까지 계속된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로,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겠는가. 당연히 예수는 많은 선지자중의 한사람일 뿐이고, 구세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서기 390 년 탈무드가 완성되고 6 세기경 페르시아 침입과 아랍의 지배를 받지만 아랍은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를린 300 년간 유대인의 활동이 활발하여진다. 그러나 11 세기부터 십자군 통치를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유대인 거주지가 파괴되고 영국은 유대인을 추방한다. 13 세기부터 16 세기 초반까지 무슬렘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유럽인구의 3 분의 일이 흑사병으로 사망한다. 그런데 유대인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의심을 받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스페인도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한다. 이 때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함에 따라 유대인들의 미국 이민은 시작된다. 16 세기부터 20 세기 초반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며, 칼 마르크스(유대인) 공산주의 이론이 이 때 탄생한다. 1881 년부터 1917 년 러시아의 유대인 대박해가 시작되어 제 1 차 알리야 (대규모이민)가 미국이민으로 이어진다. 또한 프랑스가 드레퓌스 대위 사건으로 대대적인 유대인 탄압을 시작한다. 1904 년부터 1914 년 러시아와 폴란드로부터 제 2 차 알리야가 시작되며 1918~1948 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1933~1939 년 독일로부터 제 5 차 알리야가 시작되며 제 2 차세계대전 중에 홀로 코스트 등 유럽에서 600 만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된다.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민족말살 사건이다. 2 차세계대전 이전까지도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의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고 하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대학살을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은 로스 차일드 가문을 위시한 유대인 금융거부들의 막대한 전쟁 자금으로 미국과 영국 연합군에 퍼붓는다. 그 결과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을 마감한다. 전쟁 종식의 일등공신인 원자폭탄도 유대인들의 결정체다. 그 공로로 1947 년 UN 으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 받고 1948 년 5 월 14 일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게 되며 바로 그들은 제 1 차 중동전쟁을 일으킨다. 1948~1952 년 유럽과 아랍에서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며 1956 년 시나이 분쟁으로 제 2 차 중동전쟁을 일으킨다. 1967 년 6 일 전쟁(제 3 차 중동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재통합하게 되며 제 2 차 걸프전쟁이 1991 년 일어나고, 1994 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하게 된다. 유대인의 5 천 8 백 년 역사를 대충 훑어보아도 천지창조와 성서시대를 제외하고는 수난과 유랑의 역사였다. 전세계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영토가 없었다. 농경시대에는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았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와 산업체가 없었다. 그들은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었으며 「게토」 라는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역사가 바뀔 때마다

학살과 강간의 버림을 받아야 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이스라엘과 미국 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유대인에게 관대했던 것 만은 아니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미국의 극장, 공원, 식당 등 상점은 「개와 유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였다고 한다. 개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그들은 가슴속에 어떠한 아픔을 새겼을 것이며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수난의 역사로 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 역사의 대부분이 수난 당하고 침략 당하면서도 한국이라는 땅에서 쫓겨나 유랑의 세월을 살지는 않았다. 강대국의 눈치와 비위를 맞추어가며 버티며 살아온 타협의 역사다. 유대인들과 유사한 수난의 역사를 살았음에도 왜 우리는 쉽게 과거 역사를 망각하며 살까? 유대인 그들 나름대로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된 핵심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유랑의 역사이었으므로 그들만의 생활 철학과 이동하기 쉬운 금융산업(돈놀이 사업)에 귀재가 될 수 밖에 없었다.